

9호골 손흥민 “두 자릿수 골 욕심나”

(리크)

손흥민·기성용 일문일답

亚冠수 EPL 최다골…“성용이 형 미안해”
기성용 “흥민아, 대표팀서도 골 부탁해”

비록 희비는 엇갈렸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함께 누비는 태극전사 선후배는 경기 후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특히 자신의 눈앞에서 후배 손흥민(25·토트넘)이 자신을 넘어섰음에도 기성용(28·스완지시티)은 진심어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6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스완지시티에 3-1 역전승을 거둔 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손흥민과 기성용을 만났다. 먼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기성용이 갖고 있던 아시아선수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깼다.

“(기)성용이 형은 미드필더인데, 포지션상 많은 골을 넣기가 쉽지 않다.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나한테도 프리미어리그로 올 때부터 목표였다. 성용이 형 기록을 깬 것은 운이 따른 것 같다. 성용이 형을 따라가려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에 3골이나 넣으니까(3-1로 이겨서) 성용이 형에게 죄송하게 됐다.”

이에 결에서 듣고 있던 기성용은 “내게 미안해할 것 없다. 우리는 (박)지성이 형만 넘으면 된다”며 손흥민을 격려했다.



손흥민

기성용

-두 자릿수 골 기록도 욕심낼 만하다.

“솔직히 욕심난다. 분데스리가(독일)에서도 (정규리그 또는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 좋은 스타츠(성적)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골 욕심을 내겠다.”

기성용은 옆에서 또 “조심해라. 아홉수”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골 세리머니 후 터치라인에서 포체티노 감독과 포옹했는데.

“사실 친구 케빈 위머(25)가 벤치에 앉아있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 오랫동안 경기를 못 뛰어서 어떻게든 힘을 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다보니 감독님도 그쪽에 있어서 포옹했다. 감독님이 빨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마디 하시더라(웃음).”

다음은 기성용과의 일문일답.

-오늘 손흥민이 기록을 썼는데.

“대표팀에서나 골을 넣지…(웃음). 우선 오늘 이기고 있었는데 패배로 끝났다. 손흥민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팀에 중요한 골을 넣고 중요한 기록을 세워서 (같은) 한국선수로서 자랑스럽다. 오늘 경기 전에도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다.”

-스완지시티 입장에선 아쉬운 결과인데.

“결국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찬스가 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끝까지 5분 전에 (무너져서) 아쉽긴 하다.”

-동점골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스완지시티의 경기력도 좋았다.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끈끈히 잘했는데, 라인을 많이 내려서 어려움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개인기량이 좋다보니 끈끈히 수비를 했는데, 마지막을 못 버틴 것이 아쉽다. 앞으로는 2경기가 원정인데, 고비인 것 같다. 원정에서 승점을 얻어야 팀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대표팀에 대한 얘기도 최근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이제 와서 회피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남은 경기 준비를 잘해야 한다.”

스완지(영국) | 허유미 통신원



여자축구대표선수들이 북한전을 하루 앞둔 6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본격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평양 | 뉴스스

윤덕여 감독 “北 일방적 응원이 가장 큰 적”

7일 여자 아시안컵 B조 예선 남북대결

여자축구대표팀 윤덕여(56) 감독이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원정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다짐했다. 대표팀은 북한과의 2018여자아시안컵 예선 B조 2차전을 하루 앞둔 6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비공개 훈련을 했다. 5일 1차전에서 인도를 10-0으로 대파한 대표팀은 북한전을 이번 예선 통과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인도와 홍콩을 맞아 2연승을 거뒀다. 윤 감독은 6일 훈련에 앞서 북한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인도와와의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우리가 익숙한 인조잔디는 아니었지만 좋은 경기를 했다. 여러 선수들이 득점한 것이 고무적이고, 그런 기분을 잘 살려서 경기를 준비하겠다.”

-북한의 전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북한은 세대교체 과정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북한을 상대로 당당히 경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북한전의 승부처는.

“북한의 일방적인 응원이 염려되지만, 우리 선수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다. 경기 초반에 슬

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주장 조소현(29·현대제철)이 인도와의 1차전에 결장했는데.

“우리 팀의 중심이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다. 2차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런 점을 배려해 휴식을 하게 했다. 내일 경기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김일성경기장에서 한 경기를 치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은 어떠했다.

“인조잔디는 우리 선수들이 크게 낯설어하지 않는다. 북한의 많은 관중이 일방적인 응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대비가 가능하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줄 것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시련의 계절 프랑크푸르트, 봄은 언제쯤?

할로 분데스리가

최근 7경기 1무6패, 승승장구하던 프랑크푸르트에 갑자기 시련이 닥쳤다. 한국축구의 레전드인 차범근 전 감독이 몸담았던 팀이라 유독 눈길 가는 프랑크푸르트가 전반기의 선전을 뒤로한 채 갑작스러운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2016~2017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극강’ 바이에른 뮌헨(20승5무2패·승점 65)의 독주가 여전하지만, 여러 신흥강호들이 상위권을 주름잡고 있다. 6일(한국시간) 현재 2위 라이프치히(17승4무6패·승점 55), 3위 호펜하임(13승12

무2패·승점 51), 그리고 6위 헤르타 베를린(12승4무11패·승점 40)이 전통의 강호들을 밀어내고 기세를 떨치고 있다. 4위 도르트문트(14승8무5패·승점 50), 5위 쾰른(10승10무7패·승점 40)이 체면치레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전반기만 해도 프랑크푸르트 역시 만만치 않았다. 16경기에서 8승5무3패, 승점 29로 4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졌다. 후반기에는 고작 2승밖에 보태지 못했다. 5일 쾰른 원정에서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반기 22골을 몰아쳤던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은 후반기 11경기에서 불과 4득점으로 급전직화했다. 반대로 실점은 치솟았다. 전반기 16경기 12실점에서 후반기 11경기 16실점이다. 순위도 8위(10승7무10패·승점 37)까지 내려갔다. 이대로라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출전이 가능한 7위 확보는 어렵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마누엘 노이어(31·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많은 선방을 기록 중인 골키퍼 루카스 호라데키(28)가 건재하고, FA컵인 DFB(독일축구협회) 포칼에선 4강까지 올라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도 “지난 시즌 강등 문턱까지 경험했던 프랑크푸르트다. 지금은 부진하지만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며 프랑크푸르트의 부진 탈출을 기대하고 있다.

쾰른(독일) | 윤영선 통신원

‘신태용 소문’이 불편한 이유



김도현의 사커 드림

슈틸리케 후임 둘러막기 소문 무성
부족한 인재…한국축구의 슬픈 현실

경질이나 유임이나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던 울리 슈틸리케(63·독일)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거취는 ‘조건부 유임’으로 결론이 났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하다”고 말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슈틸리케 감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론의 강한 경질 압박을 뒤로한 채 ‘조건부 유임’을 결정한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라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이다. 제대로 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기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현 시점에서 지휘봉을 맡을 국내 감독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슈틸리케 감독의 조건부 유임은 신태용(47) 감독을 고려한 수”라는 축구계 일각의 분석이다. 이 같은 시각은 그나마 슈틸리케 감독의 대안으로 꼽을 만한 국내 축구인은 현재로서는 신태용 20세 이하(U-20) 감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신 감독은 국내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5월 20일~6월 11일)에 출전해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해도 당장 신 감독을 A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앉힐 수 없으니, 일단 슈틸리케 감독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하겠다는 ‘밀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마침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8차전은 6월 13일이다. 8월 31일 이란전, 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이 예정돼 있어 6월 카타르전 결과에 따라 슈틸리케 감독 사퇴 여론이 다시 들끓으면, U-20 월드컵을 마친 신 감독을 대타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 신태용’이 아닌 ‘수석코치 신태용’에 관한 전망도 있다. 기술위는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할 ‘경험 많은 수석코치’를 뽑기로 했는데, 신 감독은 여기에



축구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오른쪽)과 U-20 대표팀 신태용 감독. 슈틸리케 감독의 조건부 유임이 결정되면서 A대표팀 코치로도 일했던 신 감독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도 해당된다는 추측이다. U-20 대표팀을 지도하면서 A대표팀 코치도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신 감독을 둘러싼 여러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신태용인가’라는 점이다. 신 감독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도자 인재풀’이 부족한 한국축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신 감독은 슈틸리케 감독 밑에서 A대표팀 수석 코치를 지냈고, 한동안 A대표팀 코치와 올림픽대표팀 감독을 겸직하기도 했다. 이어 안익수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난 U-20 대표팀에 재차 투입됐다.

신 감독의 리더십이 현재 국내 축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각도를 달리한다면 한국축구의 지도자 인재풀이 그만큼 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태용 둘러막기’는 그동안 지도자 욕성을 소홀히 한 한국축구의 냉정한 현주소인 셈이다.

한 축구인은 “슈틸리케 감독 경질시 대안을 꼽는다면 국내파 중에선 단연 신태용 감독이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신 감독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은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브라질월드컵을 1년 앞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결국 참패를 맛봤던 홍명보 감독의 전철을 신 감독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슈틸리케 감독의 조건부 유임이나 신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 모두 한국축구의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1부 기자 dohoney@donga.com

전북, 줄부상에도 멈추지 않는 ‘닥공축구’

이재성·이승기·이동국 등 부상 불구
풍부한 선수풀 기반으로 다양한 전술

전북현대대는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페즈가 지난해 11월 알아인(UAE)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원정 2차전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시작으로 2017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이 팀 훈련 도중 부상을 입고 전열을 이탈했다. 여기에 부상에서 갓 회복한 공격형 미드필더 이승기까지 다시 크게 다쳤다.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 중앙수비수 이재성도 가벼운 근육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팀을 구석은 있다. 전북은 언제나 위기에서 강했다. 약팀에 강하고, 강팀에는 더 강해지는 특유의 ‘승리 DNA’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벤치의 호흡에 언제나 응답할 자원들이 있다는 점이 든든하다. 징계, 부상 등으로 누군가 뛸 수 없더라도 ‘준비된’ 이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우승하려면 어떠한 번수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우면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생각이 없다”고 강조해왔고,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벌어진 라이벌 FC



최강희 감독

서울과의 클래식(1부리그) 4라운드 홈경기는 전북의 힘을 여실히 증명했다. 승부수는 변화, 포메이션부터 달랐다. 최근 즐겨 활용한 쓰리백 대신 기존의 4-1-4-1로 돌아갔다. 이와 동시에 일부 로테이션도 진행했다. 최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중앙수비수 임종은을 선발로 내세웠고, 중앙 미드필더 장운호를 전진 배치했다. 그동안 장운호는 공격 2선보다 수비에 무게를 둔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날 출중한 경기력으로 벤치의 믿음에 보답했다. 커버링이 좋은 반면 도전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임종은 역시 과감한 몸싸움으로 100% 임무를 수행했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훈련 강도가 워낙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특정 포지션에서 최고 실력자가 아니라면 2~3가지 역할은 해야 살아남는다. (이탈이 많은) 지금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조함을 알 수 없어, 라인업을 예측할 수 없어 전북은 더 무섭다. 8일 평양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열릴 강원FC와의 클래식 5라운드 원정경기에선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정몽준 “FIFA 제재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FA 제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 정 전 부회장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고,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2010년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의 공약을 집행한 것이 ‘이의제정’이라고 판단한 뒤 ‘5년 자격정지-벌금 5만 스위스프랑(약 6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